

현대국악사의 사초(史草) 출간을 축하한다.

김정예 외. 『신악회50년사』 서울: 신악회, 2017

송 방 송

중앙대학교 전인평(全仁平) 명예교수의 연락을 받고 필자는 2017년 10월 21일(토) 그의 공부방에서 조출하게 열린 『신악회50년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소중한 출판물을 받고 매우 반가웠다. 그뿐만 아니라 국악창작 분야의 선구자이자 필자의 선배인 김용진(金溶鎭) 한국음악협회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해 음악계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컸던 출판기념회였다.

『신악회50년사』를 받고 반가웠던 이유는 그것이 현대국악사 내 창작음악 분야의 역사를 밝혀줄 최초의 음악사료 출간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악 관련 개인이나 단체는 하나 같이 모두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자신들의 음악활동 관련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는 기록에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창작음악 분야의 여러 작곡가들이 반세기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기록물로 남겼다. 그러므로 우리음악사를 공부하는 필자의 처지에서 『신악회50년사』를 받고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음악학술단체 및 개인과 관련된 회고의 글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음악사학회(韓國音樂史學會)의 초창기를 회고하는 필자의 글¹⁾이 있다. 그리고 국악계 원로들의 회고록은 국립국악원의 구술총서(口述叢書)라는 명칭 아래 2011년부터 간행되고 있다.²⁾

1) “韓國音樂史學會 創立7周年 回顧錄,” 『韓國音樂史學報』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5), 제15집, 67-92. 이 글은 필자의 평론집 『한국음악학의 방향』 (서울: 민속원, 1998) 218-55에 수록됨.

2) 구술총서 제1집(權五聖)·제2집(李輔亨)은 2011년에 간행되었다. 2012년에는 제3집(黃秉冀)·제4집(韓明熙)·제5집(金溶鎭)이 간행됐고, 2013년에는 제6집(具潤國)·제7

그러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학술단체의 음악사료집으로는 황준연(黃俊淵) 교수가 펴낸 한국국악학회(韓國國樂學會)의 60년사 관련 사초³⁾(史草)가 있다. 따라서 『신악회50년사』는 학술단체나 연주단체가 아닌 창작음악단체의 최초 단행본인 셈이다. 필자가 특별히 『신악회50년사』의 출간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악회50년사』의 차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김정예의 신악회50년사이고, 둘째는 서울대 국악과 초기의 형편과 신악회(新樂會) 창단 전후 산증인들의 이야기이며, 셋째는 작곡가 15명의 창작음악론 또는 회고록이다. 끝마무리로 전인평 교수가 쓴 글, “맺음말: 한국음악의 미래, 창작음악,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이다.

첫째 부분의 김정예 씨는 신악회50년사를 1. 머리말, 2. 신악회의 연혁, 3. 신악회의 연주활동, 4. 신악회의 학술세미나 및 저술활동, 5. 신악회의 창작음악 콩쿠르 개최, 이렇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둘째 부분에는 1. 이상만(李相萬)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설립의 뒷이야기”, 2. 황병기(黃秉冀)의 “서울대 국악과 창설 앞뒤의 이야기”, 3. 이재숙(李在淑)의 “서울대 국악과 초기 학교생활”, 4. 권오성(權五聖)의 “초대 신국악예술인회 회장 인터뷰”, 5. 송방송(宋芳松)의 “양악도가 국악도로 변신한 사연 및 초창기 서울대의 국악과,” 이상 다섯 갈래로 구성되었다.

셋째 부분은 작곡자 15명의 창작론 또는 회고록이다. 1. 황병기의 “범대생이 음악가로”, 2. 이성천(李成千)의 “나의 작곡 노트”, 3. 백병동(白秉東)의 “작곡 60년의 궤적”, 4. 김용진의 “국악계의 별난자”, 5. 이해식(李海植)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6. 전인평의 “눈의 비늘을 떼어 준 인도음악”, 7. 박일훈(朴一薰)의 “박일훈의 어제”, 8. 남의천의 “나와 ‘한국적’ 한국가곡 운동

김(宋芳松)·제8집(李興九)·제9집(崔忠雄)·제10집(趙在善)·제11집(成又香)·제12집(혜이만)·제13집(李相萬)이 간행됨.

3) 황준연, 『한국국악학회60년사』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8).

(우리가곡연구회)”, 9. 황의중(黃義宗)의 “나의 작곡 이야기”, 10. 신진섭의 “국악인보다 더 국악을 사랑하는 음악인”, 11. 김승근의 “창작에 대한 소고”, 12. 조원행(趙元行)의 “예술가로서의 삶, 작곡가의 삶”, 13. 안현정의 “전통과 창작의 줄다리기”, 14. 김혜린의 “나는 국악작곡가이다”, 15. 강은영의 “나의 창작음악” 이상 열다섯 글이 그것이다.

신악회란 어떤 음악단체이고 반세기 동안 어떻게 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한 신악회의 역사를 김정예의 글에 의거하여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그 후 셋째 부분에 실린 15명의 회고록을 이 서평자가 차례대로 읽고 정년퇴임한 두 명예교수의 회고록 중에 중요한 내용에 주목하려고 마음먹었다.

15명의 작곡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음악활동을 전개했는지의 기록은 현대음악사의 기초사료다. 그뿐 아니라 우리음악계의 후학들이 명심하고 음악계의 두 선배교수로부터 배워야 할 인생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신악회의 뿌리는 서울대 음대 국악과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1963년에 결성한 신국악예술인회(新國樂藝術人會)에 두고 있다. 초창기의 신국악예술인회는 이론·작곡·연주 전공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85년 신국악예술인회는 작곡가 중심의 신악회로 변신되었다. 이렇듯 반세기가 흘러가면서 국악계가 양적으로 팽창하여 분화되어 지금의 신악회는 작곡 전공자들의 단체로 그 성격을 뚜렷이 드러냈다.

1963년 신국악예술인회의 초대 회장은 권오성 교수였다. 1985년 신악회로 개칭할 때부터 1993년까지 김용진 교수가 제2대 회장직을 맡았다. 1993년 백대웅 교수가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제3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011년 이해식 교수가 제4대 회장, 2013년 전인평 교수가 제5대 회장, 2016년 윤명원(尹明遠) 교수가 제6대 회장, 그리고 2016년 전인평 교수가 제7대 회장직을 맡았다.

신악회의 창작활동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되었다. 그것은 1) 여명기(黎明期: 1963~1979), 2) 발전기(發展期: 1980~1986), 3) 융성기(隆盛期: 1987~1992), 4) 침체기(沈滯期: 1993~2011), 5) 재건기(再建期: 2011~현재) 이상의 다섯 시기다.

여명기(1963~1979)에는 김용진·이성천·이해식·전인평·이상규(李相奎)의 작품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발전기(1980~1986)에 활발하게 창작한 작곡가는 김대석·백대웅·문성모·채치성·홍선례(洪善禮)·황의중(黃義宗)·이정란(李靜蘭)·최재윤(崔在倫)·이인원(李仁遠)·윤명원 등이었다.

융성기(1987~1992)에는 권덕원(權德遠)·김만석(金萬石)·김명석(金命錫)·김요섭(金要燮)·김희경(金希璟)·백성기(白聖基)·이병욱(李丙旭)·이종구(李鍾求)·정미향·조원행·최현미·홍종진(洪鍾鎭) 등이 활발하게 창작품을 발표한 작곡가들이다. 백대웅 회장의 와병과 별세로 신악회의 창작활동이 위축됐던 침체기(1993~2011)는 신악회의 제18회부터 제33회 정기연주회의 자료가 없어 제대로 정리되기 어려웠다고 한다.

2011년 이해식 영남대 명예교수가 제4대 회장으로 취임 후 이어지는 전인평(제5대)·윤명원(제6대)·전인평(제7대) 회장 시절의 재건기(2011~현재)에는 새로운 경향의 창작품과 공연이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연주회들은 각각 부제를 갖는다. 예컨대, 제34회 정기연주회는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 제35회는 “특수악기를 위한 창작의 세계, 세월호 절망을 딛고 희망을!”, 제36회 “젊은 작곡가를 위한 연주회”, 제37회는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 제38회는 “남북이 함께 부르는 우리 노래” 등이 그것이다.

제34회에는 전인평·김성경(金性卿)·정동희·황호준·안현정·황의중의 창작품이, 제35회에는 정주리·백성기·김승근·윤혜진(尹惠眞)·김미림·김혜란의 창작품이, 그리고 제36회 때에는 양미지·유민희·송정·송준영·정은영·정수연·고은영의 작품이, 제37회에는 전인평·강향숙·유민희·박병오·황의중·윤명원·김승근·안현정·양미지·고은영·김혜란·황호준의 작품이, 그리고 제38회에는 박병호·심진섭·전인평·안현정·정주리·고은영·김혜란·강

은영·이경은·채치성·황병기·양미지의 작품이 각각 연주되었다.

2013년 11월 8일~9일 한국과 베트남의 제1회 공동작곡발표회(Korea-Vietnam Joint Composition Concert) 개최는 신악회의 주목할 만한 해외연주 활동이었다. 이 발표회 때의 작곡가와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11월 8일: 1) 최상화(Choi Sang-wha)의 <멋>(Friend), 2) 강주리(Kang Ju-lee)의 <안개 속의 연꽃>(The Lotus Flower in Fog), 3) 양미지(Yang Mi-ji)의 <사랑의 노래>(Love Song), 4) 염미희(Yeom Mi-hi)의 <방랑자> (Wanderer),

11월 9일: 5) 정연옥(Jeong Yeon-ok)의 <종교적 영감>(Religious Inspiration), 6) 유민희(You Min-hee)의 <그녀와 나>(She and I), 7) 신주연(Shin Ju-youn)의 <내면 투쟁>(Inner Conflict), 8) 김혜란(Kim Hye-ran)의 <시간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Time).

한국과 베트남의 제2회 공동작곡발표회는 2017년 9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두 번째 작곡발표에 참석한 한국의 작곡가는 유민희(You Min-hee)·양미지(Yang Mi-ji)·안현중(Ahn Hyung-jung)·전지연(Jeon Ji-yeon)·박병오(Park Byong-o)·김혜란(Kim Hye-ran)·심진섭(Shim Jin-seob)·이예진(Lee Yea-jin) 이상 8명이었다.

국내외 창작곡발표회 이외 학술세미나 개최도 신악회 활동의 한 특징으로 꼽힌다. 1983년 5월 24일(토) 추계예술학교에서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문제점을 토의하였다. 이 날 초빙된 발표자는 황병기 교수였고, 그의 창작품 <침향무>와 <숲>의 예술성과 철학적 및 작곡기법과 연주기법 등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였다.

1989년 2월 24일 “국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동계세미나는 권오성·백대웅 교수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 날엔 기성세대의 국악관, 국악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창작국악의 작품세계, 악기개량의 허와 실, 이론가의 관점에서 본 작곡가와 연주가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1993년 2월 26일(금)~27일(토) 이천(利川)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동계세미

나 때 발표제목과 발표자는 이러했다. 신악회 김용진 회장의 기조발표 “국악교육의 수준에서 음계론에 관하여”에 이어 제1주제 발표는 남상숙의 “삼분손익법에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고찰”이었다. 이에 대한 토론자는 김영운·윤명원·백대웅·박범훈·김해숙이었다.

제2주제 발표는 백대웅의 “20세기 이후의 전통음계론에 관한 재검토”였다. 이에 대한 토론자는 권오성·임평룡·박범훈·김영운·최상화·권덕원·백새정·성원스님·고종숙·윤문식·현경채·김해숙·문현·박미경·윤명원·전인평·주영위·황성호·송방송이었다.

2013년 4월 29일(월) 이화여대 ECC에서 “국악기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1) 국악기연구, 2) 특수주법연구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아래의 [표 1]에서처럼 12회에 걸쳐 신악회 회원 작품을 소개하고 토론 및 연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표 1] 신악회 회원의 작품 소개 및 토론과 연구 세미나 일람표

회수	발표 연월일	발표자 이름
제1회	2013년 4월 13일	이해식·조원행
제2회	2013년 4월 27일	김대성·김미림
제3회	2013년 5월 11일	윤명원·심진섭
제4회	2013년 6월 1일	강상구·전인평
제5회	2013년 6월 15일	정동희, 가야금연구
제6회	2013년 9월 28일	이경희·강주리
제7회	2013년 10월 19일	고은영·안승철, 해금연구
제8회	2013년 11월 2일	이해성(치유음악)·유민희·전인평(관현악 분석: 두레)
제9회	2014년 3월 39일	황호준·신주연
제10회	2014년 4월 19일	김승근·고은영
제11회	2014년 5월 10일	이해식·강주리
제12회	2014년 5월 31일	김대성·박병오

신인 작곡가를 위한 창작음악 콩쿠르 개최 또한 신악회의 자랑스럽고 특징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작곡계의 차세대 주역을 배출한 1987년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콩쿠르 수상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아래의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신악회 주관 창작국악 콩쿠르 수상자 일람표

회수	수상 연월일	수상자 이름 및 작품명
제1회	1987년 5월 20일	1등: 김만석 <가야고 독주곡 정선(旌善)> 2등: 백성기 <모뜨는 소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2회	1988년 5월 20일	1등: 없음. 2등: 김명석 <목마른 사슴같이>, 조원행 <진달래꽃>
제3~7회	1989년~2012년	자료 없음
제8회	2013년 9월 26일	대상: 김혜란, 금상: 강주리, 은상: 정수연·강솔잎, 동상: 양미지, 장려상: 김지선
제9회	2014년 10월 20일	대상: 양희영, 금상: 고은영, 은상: 송정·양시종, 동상: 정수연·이로운, 장려상: 전지연
제10회	2015년 8월 11일	대상: 전지연, 금상: 최윤숙, 은상: 강은영·이동주, 동상: 안가을·이지연·정영선, 장려상: 문신원·박철우·최은혜
제11회	2017년 9월 3일	대상: 김영선, 금상: 김예지, 은상: 김지현, 동상: 최은혜, 장려상 손성국·김유나·양영광

이와 더불어 신악회는 국악작곡상 및 국악작곡대상을 제정하여 기성 작곡가의 업적을 축하했고, 그 위상을 널리 알렸다. 2012년 국악작곡대상 수상자는 김용진이었고, 국악작곡상 수상자는 조원행이었다. 2014년 국악작곡대상 수상자는 이해식이었고, 국악작곡상 수상자는 박병호였으며, 2015년 국악작곡상 수상자는 황호준이었다.

신악회의 음악활동을 요컨대, 1985년부터 작곡가로 구성된 신악회의 활동은 창작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학술대회 개최는 물론이었고, 회원들의 창작품 소개와 비판적 토의 및 작곡계의 신인 발굴을 위한 창작콩쿠르 개최, 그리고 베트남 작곡가들과 공동작곡발표회(Korea-Vietnam Joint Composition Concert) 개최 역시 신악회의 자랑스럽고 빛나는 음악활동이었다. 이런 모든 기록이 현대국악사의 사초이기 때문에, 『신악회50년사』의 출간이 지니는 문헌적 가치는 막중하다.

『신악회50년사』에 수록된 여러 음악가들의 글 중에 이 서평자의 눈에 잡힌 전인평·남의친, 두 명예교수의 글에서 전통음악 분야 내 작곡계를 비롯해 이론계의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몇몇 사례의 구절을 인용하여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필자를 감동시킨 전인평 교수가 쓴 다음 인용문의 값진 인생교훈이 후학들에게 남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탓에 먼저 선정하였다.

<인용 1-1> 나는 원래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였다. 필자는 작곡을 잘하기 위하여 한국음악사를 공부하였고, 한국음악사를 더 잘 알기 위하여 아시아음악을 공부하였다. 아시아음악을 공부해 보니 마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한국음악이 환하게 보였다.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면 골목골목이 한 눈에 보인다. 이렇듯이 아시아음악연구는 한국음악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도록 도와주었다.(176-77쪽) …(중략)…

본인의 동북아시아음악사 서술계획을 듣고 몇몇 학자들이 걱정 겸 우려를 보였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동북아시아음악사』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책이어서 모자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동학과 후배들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198쪽)

<인용 1-1>은 아시아음악학회(Council for Asian Musicology) 회장 전인평 교수의 “눈의 비늘을 떼어 준 인도음악”이라는 회고록에서 인용한 일부다. 그의 회고록을 읽었을 때, 이 서평자는 올바른 작곡가로서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음악사를 비롯해 아시아음악 중 특히 인도 음악에 주목해 연구한 그의 진지한 학구적 자세에 크게 감동했을 뿐 아니라,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음악사학(音樂史學: historical musicology)을 전공하고 한국음악사를 연구한다는 이 서평자가 범아시아적 시각을 갖도록 이웃나라 중국 및 일본 언어를 공부하자고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공부동아리를 운영했던 적은 있다. 그렇지만 이 서평자도 시도해보지 못한 아시아음악과 인도음악연구에 음악학자(musicologist)가 아닌 작곡가(composer) 전인평 교수가 보여준 남다른 관심 및 그의 학구적 진지함에 감탄했음은 물론이었고, 또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인평 교수의 진지한 학구적 자세와 실천에 후학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전인평 명예교수가 어떻게 아시아음악 관련 연구서를 출간했는지는 <인용 1-2>에 잘 서술됐으므로 인용하였다.

<인용 1-2> 1980년대 이후 필자는 아시아음악을 위해 방학만 되면 외국에 나갔다. 방학이 아니더라도 틈만 나면 아시아지역을 돌아다녔다. …(중략)… 이렇게 30여 년 동안 연구에 쓴 돈을 대강 계산해 보니 아파트 한 채와 맞먹을 정도이다. 이렇게 시작한 아시아음악연구는 1989년 『동양음악』이라는 책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중략)… 2001년에는 『아시아음악연구』를 출간했고, 2003년에는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를 출간하였다. …(중략)… 2015년에는 『아시아음악의 이해』를 대폭 수정 보완하여 『아시아음악 오디세이』라는 새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202-203쪽)

농부가 애쓴 만큼의 수확을 거둔다는 하늘의 이치, 곧 천리(天理)처럼 아 파트 한 채 값을 자신의 학구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 전인평 교수의 진지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이론전공 교수들도 펴내기 어려운 아시아음악 관련 연구서들, 예컨대 『동양음악』(1996)·『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1998)·『아시아음악연구』(2001)·『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2003)·『동북아시아음악사』(2012)·『아시아음악 오디세이』(2015)라는 값진 연구성과물들이 바로 농부가 보여준 값진 천리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후학들이 주목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인생교훈 말이다.

1991년 유네스코의 비단길 탐사 관련 제의가 본래는 이 서평자에게 있었다. 현장조사(field research) 위주의 종족음악학(種族音樂學: ethnomusicology) 분야에서 음악학박사학위(Ph.D.)를 취득한 이 서평자에게 비단길 탐사 관련 제의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1990년 동맥경화로 인하여 쓰러진 후, 건강을 회복하던 중이었다. 그러므로 전인평 교수에게 그 제의를 넘긴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1998)·『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2003) 두 결실이 유네스코의 비단길 탐사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인용 1-3> 1999년 말레이시아 코타끼나발루에서 아시아역사학대 회가 있다. 이때 모인 음악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Council for Asian Musicology를 결성하고 학회 저널로 영문학술지 Asian Musicology 발간을 결의하였다. (188쪽) …(중략)…

이렇게 분주한 생활을 하다가 2010년 8월 말로 중앙대학교를 정년 퇴직하게 되었다. 1983년 부임을 하였으니 27년을 근무한 셈이다. 이곳 중앙대학교에서 재직 중 책을 20권 펴냈고 80여곡 작품을 썼다. (190쪽)

내로라하는 음악학자들의 연구서보다 훨씬 많은 20권의 책을 펴낸 작곡가 전인평 교수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학구열에 다시 한 번 경탄 및 축하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는 바이다. <인용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악학자라고 자처하는 이 서평자가 실행해보지 못한 아시아음악학자들과 어울려 아시아음악학회(Council for Asian Musicology)를 창립하고 『아시아음악학』(Asian Musicology)이라는 학술지를 출간했으니 더욱 찬사 받아 마땅하다.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이 잘 안다”는 옛말이 있다. 학회창립 및 음악학술지의 지속적 출간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인 지를 1988년에 창립한 한국음악사학회(韓國音樂史學會)의 『韓國音樂史學報』를 현재까지 결권 없이 출간해 온 경험자로서 이 서평자는 과부의 외로움이나 서글픔처럼 전인평 교수의 버티기 어려웠던 남모르는 고충과 인생고비를 너무나 잘 알고 남음이다.

밝히자면 2002년부터 아시아음악학회(Council for Asian Musicology)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결권 없이 『아시아음악학』(Asian Musicology)라는 영문학술서를 해마다 출간해 오느라고 흘린 그의 피땀 어린 노력과 그 고충 말이다.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의 두 몫을 수행하느라고 남모르게 고생한 전인평 교수가 보여준 귀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후학들이 아무쪼록 그의 업적을 전승하여 21세기 국악작곡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음으로는 작곡가가 아닌 성악가이자 신악회의 회원인 <우리가곡연구회> 회장 남의천 전남대 명예교수의 회고록 “나의 ‘한국적’ 한국가곡운동”을 인용한 후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무엇을 후학들이 귀감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 거론할 차례다.

<인용 2-1> 연주가 시작되고 한 곡 두 곡 노래를 불러가는데 여기 저기서 ‘Beautiful like Italian Canzone!’ 또는 ‘Beautiful like German Lied!’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략)… 한 교수가 질문을 했

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너희 나라의 음악이었냐? 이거 말고 다른 음악은 없냐? 이 음악 이전에는 너희 나라의 음악은 없었냐? 그게 어찌 너희 나라 음악이냐?’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네에게 익숙한 음악이지 너희의 음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중략)… 요즘 식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베낀 것, 말하자면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필자는 무엇이 한국가곡인가? 진짜 한국가곡과 가짜 한국가곡의 기준은 무엇일까? 서양의 가곡과 한국의 가곡은 무엇이 다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222쪽)

위의 인용문은 남의천 교수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뉴욕 주립대(SUNY at Stony Brook)에서 교환교수 시절 개최했던 일종의 세미나 콘서트(Seminar Concert)에서 공연 후 뉴욕대 음대교수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깨우친 바 ‘한국적 한국가곡’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귀국한 내용이다.

무엇이 한국가곡인가? 그의 학구적 의문은 매우 값지고 소중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터득하기 어려운 한국가곡 관련 문제점을 교환교수 시절에 깨우치고 귀국했다는 것은 남의천 교수의 값진 수확이기 때문이다. 그의 학문적 의문과 깨우침 관련 결과는 다음의 <인용 2-2>에 나오는 <우리가곡연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인용 2-2> 미국에서 마음에 담고 왔던 큰 숙제 - 무엇이 한국가곡인가? 진짜 한국가곡과 가짜 한국가곡의 기준은 무엇인가? 서양의 가곡과 한국의 가곡은 무엇이 다른가?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1992년 가을부터 한국가곡 공부모임이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한국적’ 한국가곡을 찾아 연주하자는 본격적인 성악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운동은 한국가곡 공부모임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곡연구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창단되면서 ‘한국적’ 한국가곡 연주하기 운동의 모태가 됩니다.(226쪽) …(중략)…

대부분 대중적인 한국가곡을 다루고 있는 우리음악계의 현실 속

에서 우리음악의 정체성을 찾아 바로 세워보자는 운동인 것입니다.(227쪽)

오늘날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서양음악 분야에서 남의천 명예교수처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악운동을 펼치는 진지한 양악교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서평자가 <우리가곡연구회>의 공부모임을 이끌어 가는 남의천 명예교수의 학구적 진지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거니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그의 올바른 깨우침에 있다.

성악운동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남의천 명예교수는 음악계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예컨대, 작곡가 강준일(姜駿一)·이건용(李建鏞)과 이른가 최종민(崔鍾敏)·민경찬(閔庚燦)·이강숙(李康淑)·김용환(金龍煥)·노동은(魯棟銀) 등이 초창기 세미나의 초빙강사였다. 1994년 이후에는 백병동(白秉東)·전인평·이해식(李海植)·이영조(李永朝)·백대웅(白大雄)·진규영(陳圭英)·오현명(吳鉉明) 등 다양한 인사를 <우리가곡연구회>의 공부모임에 초청하였다.

<우리가곡연구회>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의천 명예교수가 추구하는 ‘한국적’ 한국가곡이란 이탈리아나 독일의 가곡과 구분되는 우리가곡, 달리 말하자면 스파게티가 아닌 간장 냄새나는 잔치국수 맛의 노래를 뜻하리라.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강숙 박사가 어느 논문(4)에서 주장하는 진(眞)한국가곡이 남 교수가 말하는 ‘한국적 한국가곡’이고 준(準)한국가곡은 서정가곡풍의 대중가곡인 셈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하였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가 공부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는 독창적이라고 말한다. 서양 성악가의 연주나 작곡가의 작품을

4) Lee Kang Sook(李康淑), “Korean Music Culture: Genuine and Quasi-Korean Music,” 『張師助博士回甲紀念東洋音樂論叢』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7), 265-80. 이 논문에서 이강숙 박사는 “학교중이 땡땡이”가 準韓國音樂이고, 전통가곡 編樂이 眞韓國音樂이라고 실례를 들어 거론함.

모방하는 답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맛깔스러운 연주나 독창적 작품을 보여주는 성악가 및 작곡가의 출현이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이것이 남보다 한 발 앞서 자신의 독창적 성악을 추구해 온 남의철 명예교수의 학구적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제한된 원고매수 때문에 다른 분의 회고록 점검을 접고 두 명예교수의 글을 점검하는 것으로 마감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1세기 국악계의 역사는 현재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라는 그들의 인생목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정년퇴임한 전인평 및 남의천 두 명예교수의 학술활동에 주목한 이유는 남보다 일찍 독창적 작품을 쓰고 싶었던 욕망 그리고 본류(本流)가 아닌 아류(亞流)의 성악가로부터 해방되고자 학구적으로 노력한 두 명예교수가 걸은 삶의 흔적이 후학들에게는 소중한 귀감으로 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악작곡가 및 신악회 회원들의 단체활동과 더불어 반세기 동안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이번 서평을 통해서 점검하였다. 국악작곡계의 선학들이 물려준 삶의 값진 인생교훈을 본받아 차세대 작곡가들이 한 차원 높은 도약의 작곡사를 성취하는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두 선학의 회고록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외로운 삶을 재조명해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인생교훈을 이 서평자는 학문활동을 전개하면서 깨우쳤다. 목표의식이 분명한 신악회의 회장을 비롯해 회원 모두에게 세월이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 버리지 않았고, 반세기 동안 차곡차곡 쌓여 작곡의 역사를 만들었다. 『신악회50년사』라는 사초의 출간이 그 증거물이다.

선학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한 자랑스러운 신악회 50년 역사의 결실을 바탕으로 후학들이 선학들처럼 끊임없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노력할 때,

신악회의 21세기 역사는 성공적으로 전개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악회50년사』를 서평하도록 만든 이유다.

“뜻있는 차세대 작곡가들이 한 차원 높은 도약의 역사를 성취할 신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파이팅!!!”